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11월 3일
제2024호

주임신부 :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 무 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 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마르 12,29-31)

〈착한 사마리아인〉, 호세 타피로 바로

연중 제31주일 (나해)

제 1 독 서 **신명 6,2-6** |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화 답 송 **시편 18(17)**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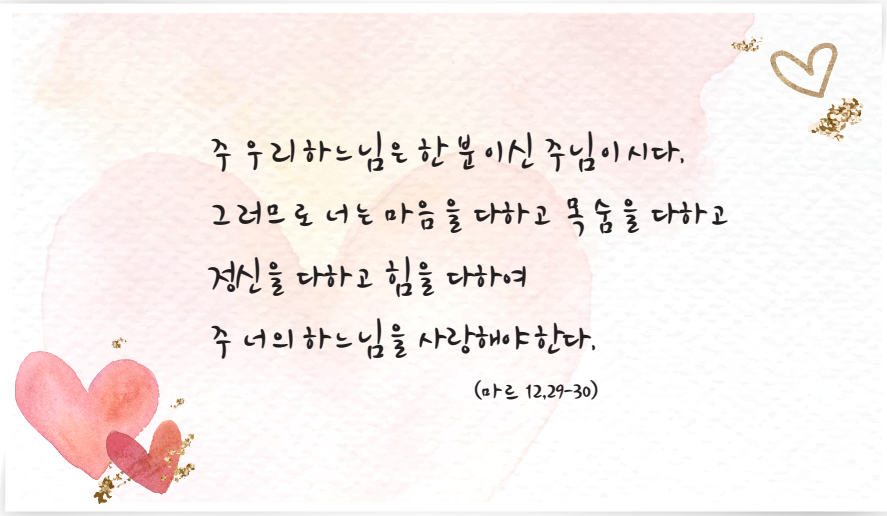
제 2 독 서 **히브 7,23-28** |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 음 **마르 12,28ㄱㄷ-34** |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때에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복음 묵상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사랑의 이중 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내가 중심이기를 멈추고, 상대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향한 이기주의적 움직임을 포기하고, 다른 이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민범식,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156-165면 참조). 그래서 만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랑은 아직 성숙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면 아직도 내가 중심에 있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상대의 행복을 바라고, 상대의 완성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중심이 되고 자신이 상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생애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신보다 하느님께서 먼저이시고, 이웃이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바치신 것은 참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신 '너-중심적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상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상대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상대가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진다는 사고로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 아주 쉽게 이해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 여기는 사랑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하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CYO ·*News*

DIOCESE OF ARLINGTON PRESENTS

RALLY

CYO Students and Teachers Gather with Bishop Burbidge at Rally 2024

지난 10월 27일(일) 본당 **CYO** 학생들과 교사들은 매년 열리는 알링턴 교구 **Rally**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랠리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알링턴의 비숍 오코넬 고등학교 강당 발코니로 넘쳐날 정도로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청소년, 캠퍼스 및 청소년부 사무국의 케빈 볼리는 "이번 랠리는 확실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청소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구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앙 안에서 즐거움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낸 참가자들의 소감과 사진을 게재합니다.

Harper Choi (9th)

"성당 친구들과 랠리에 함께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랠리에서 학교 친구들도 만나 신기했고 다른 성당 친구들과 함께해서 **'우리'가 더 넓어진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또 하느님과 어떻게 친해지는지 얘기하면서 저도 저와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도 이렇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미사 보고 주일학교 다니는 일요일에 성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8학년 때까지 Bash 갈 때는 부모님 차 타고 이동했는데 9학년부터는 부모님이 성당까지만 데려다주고 친구들과 선생님 차 타고 이동해서 제가 어른이 된 거 같고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들고 제 **행동에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다 함께 랠리에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Aidan Hwang (10th)

This past Sunday's Rally at Bishop O'Connell High School was filled with good friends, fun games, food, and praises. I Met all the Catholic people in our area. Listening to stories about how they were connected to Jesus made me think about **my relationship** with Him. They shared about how close they felt to Jesus and the miracles they witnessed in their lives.

I also want to apply what they shared in my life to get closer to Jesus. I loved the mass because the praises we sang together were strong and resonating. Ending with a chance to meet the real Jesus during Eucharistic adoration was an amazing feeling I will never forget because **I spoke to Him as he walked around us so closely**. I look forward to next year's Rally.

Ji Suh Lee (9th)

I had so much fun at the rally! My expectations and excitement for this event were low at the start, but I quickly found myself enjoying the day. Not only did I have an incredible time **socializing and hanging around**, but I also got the opportunity to **become closer and more connected to God**.

The talks that the speakers gave were inspiring. They not only talked about facts about saints and the bible, but they also spoke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Listening to them open up, and feeling their devotion to God made me want to become more like them.

Another part I enjoyed was the Eucharistic Adoration. I experienced about **1,000 people kneeling together on the floor, looking up at the cross**. Kneeling there, I felt **God's unconditional love for everyone** there and the love that the people around me for God. Rally was an amazing experience for me, that I know I'll be attending next year as well!

내 사랑 ♥ 한국

고국 성지 순례

- 내년에 고국 성지 순례를 떠나려 합니다.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에 미리 공지해 드리고 순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 9월 26일(금)
- **모집 마감** : 12월 1일(일) 교중 미사 후까지
- **신청** : 사무실(추후에 일정과 순례 금액 공지 예정)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원은 최소 35명에서 최대 70명 예상
- **신청 방법** : 순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접수하면 나중에 개인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순례 일정

- 9월 15일(월) - 18일(목) **배론성지** (피정, 친교, 순교자 현양 대회 참석)
- 9월 18일(목) - 20일(토) 경상도 지역 성지
- 9월 20일(토) - 22일(월) 전라도 지역 성지
- 9월 22일(월) - 24일(수) 충청도 지역 성지
- 9월 24일(수) - 26일(금) 서울·경기 지역 성지

1 2차 헌금

- 11월 10일(연중 제32주일) 미사 중에 성직자와 은퇴하신 성직자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헌된 삶을 사신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2차 헌금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11월 3일(일) 오전 11:30 (A-1,2)

3 대통령 선거일 - 친교실 사용 금지 (11월 5일)

- 11월 5일(화)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성당 친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단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요일 레지오 모임, 성령 기도회, 단체부 모임은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1월 목요 신심 기도회

- 일시 : 11월 7일(목) 오후 7:30 (성당)
- 11월 목요 신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 강사 : 이태섭 요한 신부님

5 병자 영성체

- 일시 : 11월 8일(금) 9시부터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6 묘지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11월 9일(토) 오전 10:30 (묘지 축성)
  오전 11시 (미사)
- 묘지 축성을 원하시는 분은 10: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11월 위령 성월을 맞아 Fairfax Memorial Park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며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 위령미사 예물은 사무실과 현장에서 받습니다.

7 유아세례

- 일시 : 11월 9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11월 9일(토)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시다.

9 단체장 회의

- 일시 : 11월 10일(일) 오전 11:30 (B-1,2)

10 85차 세례성사 안내

- 찰고/면담 : 11월 9일(토) 오후 6:30
- 세례식 : 11월 10일(일) 오전 10시 미사 중(18명)
- 환영식 : 11월 10일(일) 오전 11:30 (A-1,2)
-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형제자매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하시도록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세례받은 분들의 구역장님들과 각 연령대별 단체장님들, 그 외 단체들에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11월 10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12 주일학교 학생 전례 봉사

- 주일 오후 2시 미사 전례 봉사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 6학년(CCD) - 고등부(CYO)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교감 (703) 624-8196

13 성 요셉 아버지 학교 죽음 준비 교육

- 일시 : 11월 3일(일) 교중 미사 후
  11월10일(일) 교중 미사 후
- 교육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4 2024년 꾸르실료 동중부 울뜨레아

- 일시 : 11월 17일(일) 오후 3시
- 장소 :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꾸르실료 교육받으실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 분들께서는 함께 하시어 감동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영석 마티아 (703) 835-6308

15 2025년도 첫영성체 반 부모님 사전 미팅

- 일시 : 11월 17일(일) 오후 3:10 (친교실 A-1,2)
- 2025년도 첫영성체 반을 시작하기 전, 대상자 부모님들 사전 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첫 영성체 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3학년 이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 파티마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신청 접수

- 접수 : 오전 8시/10시, 오후 2시 미사 후 (친교실)
- 준비 기간 : 11월 6일(수) - 12월 8일(일)
- 봉헌식 : 12월 8일(일) 오후 7시(성당)

2025년 매일미사 책 주문받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성물부**

St. Lucy Food Project Donation

11월 24일(일) 까지

알링턴 교구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Food donation과 Personal Hygiene Items를 받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 친교실, 하상관에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11/03 이번 주	스프링필드 구역
11/10 다음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10월 27일(연중 제30주일)

봉헌금	$ 8,699.00
교무금	$ 6,150.00
교무금(신용카드)	$ 2,280.00
감사 헌금	$ 850.00
온라인 봉헌	$ 2,040.00
합계	**$ 20,019.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11월 07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11월 08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11월 10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한국 천주교회사 : "그들이 꿈꾼 세상" (1)

| 교황님의 11월 기도지향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